



자립경영기반구축의 해

韓國重工業株式會社

91년 원자력산업 신년호에 게재한 「91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전망」에서 91년은 한중의 흑자원년 첫해가 될 것임을 다짐했다. 그러나 당시 일반국민은 물론 전력그룹의 관계직원들까지도 과연 하루에도 수억원의 적자가 발생한 기업이, 누적결손만도 수천억원에 이르는 기업이 과연 흑자로—그것도 새로운 경영진이 취임한지 1년 정도 되지 않았는데—전환할 수 있을까? 라고 반신반의했던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91년도에 우리 한중은 1조원을 상회하는 매출에 500여억원의 경상이익을 실현하여 10여년동안 끌어온 만성적인 적자기업의 오명을 씻고 희망찬 미래를 건설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손익적인 측면에서의 경영성과 못지 않게 국내발전설비산업의 선도적인 위치에서 이룩한 기술적인 성과 또한 획기적인 한해였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92년 한중의 주요사업계획 및 전망을 쓰기 전에 91년도에 이룩한 기술적인 성과에 대해서 간단히 쓰고자 한다. 이는 한중이 경영정상화와 병행하여 발전설비의 기술자립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심정에서 인지도 모른다.

지난 91년 9월에 국내에서 최초로 원자로(Reactor Vessel)의 국산화제작에 성공하여 영광건설현장에 납품하였고 국내최초로 설계, 제작한 격납건물천정기중기(Polar Crane)의 설치 및 성능시험을 마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원자로는 4년여에 걸쳐 소재에서 완제품에 이르기까지의 전공정에 대해 100% 국산화개발

에 성공하였으며 출하전 공장에서 수압시험과 가동전검사(Pre-Service Inspection)를 통하여 기기의 완벽한 안전성을 증명하였다. 이는 88년 영광원자력 3, 4호기의 원자료를 제작에 착수한 이후 4년만의 쾌거이며 이로써 원자력설비제작기술은 자립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92년도에는 회사의 경영지표를 자립경영기반구축의 해로 정하고 기업이 지향하는 안정과 성장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는데 필수적인 기술, 자금, 일감 등을 독자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데 총력을 경주할 계획이다.

특히 독자기술개발을 위하여 인력면에서 기능인력은 현수준을 유지하면서 250여명의 기술인력을 신규로 채용하여 인력구조를 기술중심으로 개선하고 엔지니어링분야의 훈련강화, 신규프로젝트설계업무의 직접수행으로 경험축적, 사내연구소활동의 활성화 등을 통하여 독자기술의 기반을 구축하고 점진적으로 자체기술개발의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생산능력을 확충하기 위한 시설투자부문에서는 그간 투자규모 때문에 보류해 왔던 터빈발전기의 Over Speed Balancing 설비에 300여억원 이상을 투자할 것이며 91년초에 착수했던 디젤엔진의 Crank Shaft 제작시설을 완료할 예정이다.

손익면에서 매출은 직원 1인당 2억원의 수준인 1조3천억원(표 1)으로 91년 대비 20% 이상의 증가가 예상되며 경상이익도 91년도의 실적

〈표 1〉 매출 및 수주전망

(단위 : 억원)

구 분	1990	1991	1992계획	비 고
수 주	14,161	17,792	18,575	
매 출	6,219	10,380	13,000	

을 상회하는 경상이익을 실현하여 흑자기업으로의 정착을 위하여 우리 한중인 모두는 한마음 한뜻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원자력사업부문은 87년부터 추진해온 영광 3, 4호기 및 월성 2호기 등 총 5기 4,700MW의 원자력사업의 엔지니어링, 구매, 제작, 납품, 설치 등 사업공정이 프로젝트별 계획에 따라 진행되며 금년중 월성 3, 4호기 및 영광 5, 6호기를 새로이 수주하여 사업에 착수할 것이다.

또한 정부의 장기전력수급계획에 의하면 2006년까지 총 85기 44,820MW를 추가건설키로 확정한다(표 2).

이 중 추가건설용량의 36% 정도인 18기 200MW를 원자력발전소로 충당할 예정인데 이의 상당부분은 우리 한중이 수행하여야 할 것이므로 기술개발과 품질확보 등에 주력하여 동원자력발전소를 적기에 건설함으로써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기여할 것이다.

금년에 달성할 중점과제를 프로젝트별로 살펴보면 영광 3, 4호기는 기자재를 적기에 공급함으로써 현장설치작업이 공정에 따라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또한 기자재의 대부분을 납품할 수 있도록 끝마무리작업에 전력투구 할 것이다.

울진 3, 4호기는 영광 3, 4호기 등 선행호가 사업수행을 통하여 이룩한 기술자립성과 특히 설계기술자립성과를 프로젝트수행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선행호기에서 일어났던 동일문제의 재발을 최소화하고 이제까지 사업수행과정에서 노출되었던 취약부문의 능력을 보완, 향상시키며 기전설치공사의 준비태세를 갖추기 위하여 NSSS 및 T/G의 설계계산과 분석업무를 한중이 직접수행하여 경험을 축적하고 기술관리의 적극적인 참여와 시스템엔지니어링의 추가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월성 2호기는 금년중 수주할 월성 3, 4호기와 통합관리할 방안을 수립, 추진하면서 초기 국산화품목의 품질확보방안을 수립하고 월성 3, 4호기 이후의 중수로형 원자력발전소건설부터는 한중이 주계약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능력을 축적하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장단기적으로 우리 한국중공업이 담당하여야 할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이 국가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가장 중요한 일임을 우리 한중가족 모두가 깊이 인식하고 그동안의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경험으로 국가기간산업의 원동력인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표 2〉 발전설비건설계획

단위 : 천kW, (기)

구 분	기존계획 (1991-2001)	수 정 계 획		계	비 고
		1991-2001	2001-2006		
원 자 력	4,700 (5)	8,100 (9)	8,100 (9)	16,200 (18)	
유 연 탄	9,720 (16)	12,240 (24)	2,880 (4)	15,040 (28)	
무 연 탄	200 (2)	200 (1)	-	200 (1)	
석 유	20 (2)	20 (2)	-	20 (2)	
L N G	3,980 (6)	5,230 (8)	4,500 (6)	9,730 (14)	
수 력	1,260 (9)	2,130 (16)	1,500 (6)	3,630 (22)	
계	19,880 (39)	27,920 (60)	16,900(25)	44,820 (85)	